

보도시점 (온라인) 2024. 1. 25.(목) 10:00
(지 면) 2024. 1. 25.(목) 석간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 올해 첫 ‘중앙주소정보위원회’ 개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추가 개통 구간(경기 포천-남양주) 변경 심의

□ 지난해 ㄱ씨는 연말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를 찾았다. 지하철역에는 제시간에 도착했지만 넓고 복잡한 지하도상가에서 한참을 헤매다 결국 약속시간에 늦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실내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약속장소인 목적지까지 ‘길찾기’ 기능을 통해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되었기 때문이다. ㄱ씨는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다.

□ 서울 서초구는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630여 개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한 지하도상가 일대를 안내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운영한다. 고터맵은 상점마다 도로명·기초번호를 부여해 공간 데이터 정보를 구축하고, 앱으로 내비게이션을 구현해 위치정보를 안내하는 미래형 스마트 행정서비스 모델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2024년 첫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을 진행하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경기 포천-남양주) 일부 도로구간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광역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와 주요 주소정책 심의기구로 7명의 정부위원과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도로명주소법 제29조)

□ 이날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주소정보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를 실증했다.

- 기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은 지하와 같이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길찾기가 쉽지 않았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전시 대전역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용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사업에 따라 GPS 신호 수신이 불가능한 복잡한 지하상가, 헛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도 주소정보를 이용한 길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1개 도로명으로 된 고속터미널 지하도 내부도로와 상점에 도로명·기초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블루투스 기반 위치정보 전달장치 150여 개도 설치하여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 고터맵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용 서비스는 추후 출시 예정

- 향후, 서초구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속터미널역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지하도상가 내부도로 및 상점 등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지도를 제작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소방에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개통 구간(경기 포천-남양주*)에 대한 도로구간 변경(연장)을 심의했다.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연장) 포천-남양주 구간(28.7Km)

- 특히, 이번 개통된 구간 내 휴게소나 주요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 안내 등 국민의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 (www.juso.go.kr)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주소정책을 통해 디지털 시대 생활·행정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입체도로(고가·지하 등)·사물주소(우체통 등 6종 추가) 등 주소정보 확대구축 및 한-아프리카 주소체계 현대화 MOU체결과 같은 지난해 성과에 이어,
- 올해에는, 미래사회 혁신을 위한 주소지능정보 구축 및 주소정보산업을 국가의 미래신산업군으로 육성하고, 전 국토의 이동경로 및 점점을 촘촘하게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도 지속(3년차)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난해 주소체계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하여, 올해 한국형(K) 주소체계 국제표준 확대 및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아프리카(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주소체계 현대화 MOU체결(23.11.9), 세계주소 컨퍼런스(23.11.9~10) 등

□ 특히, 올해 2024년은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 도로명주소를 통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보를 확충하여 복잡한 지하상가에서도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편의성과 접근성뿐 아니라,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시 빠른 대피 또는 구조·구급 출동시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책임자	과 장	박광섭 (044-205-3551)
		담당자	사무관	감영규 (044-205-3559)



참고1 2024년 제1차 중앙주소정보위원회 개최계획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라 '24년 주소정책업무계획·홍보계획 보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에 대한 일부도로구간변경 심의를 위해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일시/장소) '24.1.25.(목) 10:00 ~ 12:00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 (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3 (6층 회의실), ** (시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00

- (참석대상) 12명(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9명)

※ 전체 위원 20명 중 12명 참석가능하여 위원회 개의 요건 충족

□ 주요 안건 : 일부 도로구간 변경, 2024년 주소정책업무계획·홍보계획 등

- [심의 안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도로구간 변경(연장)
- [보고 안건] '24년 주소정책 업무계획, 홍보계획
- (정책현장방문) 신규주소정보를 활용한 실내내비게이션 사업장* 방문 및 체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고투몰 중앙광장

□ 세부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 성원보고 및 개회	
10:05 ~ 10:25	20'	· 광역도로 도로구간 연장 심의	
10:25 ~ 10:55	30'	· '24년 주소정책업무·홍보계획 보고	
10:55 ~ 11:05	10'	· 실내내비게이션 사업설명	
11:05 ~ 11:30	25'	· 이동(LX 한국국토정보공사 → 서울고속터미널)	* (차량이동)
11:30 ~ 11:50	20'	· 정책현장방문(실내내비게이션 체험)	* (장소)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고투몰 중앙광장

참고2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시연 계획

□ 시연 개요

- (일시·장소) 2024. 1. 25.(목) 11:3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고투몰 중앙광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00
- (주요내용) 사업 결과 보고 및 시연

〈 사업 개요 〉

- ▶ (사업수행사) (주)휴빌론 컨소시엄
- ▶ (기간·예산) '23.9.18.~'23.12.22.(3개월) / 200백만 원
- ▶ (과업 내용) ① 실내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② 실내 측위 DB 구축
③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실증

□ 세부 내용

- (이동계획) 4그룹으로 나누어 앱 사용 화면 시청 및 이동(총600m, 도보10분)
- [출발]고투몰 중앙광장(실내) → [경유]투썸플레이스(실외) → [도착]고투몰 GATE5(실내)

